

아깝다! 페널티킥 한방에 0 대 1 석패

— 연변팀, 3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



4월 4일 16시, 연변룡정축구구락부(이하 '연변팀')은 심수보안체육장에서 진행된 2026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라운드 경기에서 심수청년인팀(이하 '심수팀')에 0 대 1로 패배했다. 연변팀 이기형 감독은 이날 3-4-3 전형을 꺼내들었다. 골문은 구기호가 지키고 수비진은 서계조, 누네스, 단덕지로 구축했다. 중원에는 김태연, 박세호, 도망구스, 최태욱이 배치되고 공격진은 손석봉, 황진비, 조반니로 구성했다. 포부스는 이날 경기 대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승격을 목표로 내건 심수팀은 지난해 슈퍼리그 경험이 있는 새 용병 로드리고와 두갈라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탄탄한 국내 선수들을 더해 4-4-2 전형을 꺼내들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심수팀은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에 연변팀은 수비지역에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고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도 쉽지 않았다. 심수팀의 전방 압박과 연변팀의 답답한 공격 전개는 전반 30분까지 이

어졌다. 특히 상대가 문앞까지 압박을 가해오자 패스가 매끄럽지 못하고 어수선한 등 연변팀 수비진 전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 36분, 심수팀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이 조반니 쪽으로 흘러갔다.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조반니가 슈팅을 때렸지만 키퍼에 막히며 골문을 벗어났다. 조반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41분경, 프리킥 기회에 조반니의 환상적인 슈팅이 골선을 그리며 골문을 향했으나 또 한번 골키퍼에 막혔다. 전반전 연변팀의 공격은 조반니를 통해 많이 전개되었다. 조반니는 여러 차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연변팀도 전반 막바지에 들어서 수차 코너킥을 얻으며 분위기를 뒤집어보려는 노력을 가했다. 한편 전반전 내내 강한 압박을 펼쳤던 상대팀은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진 듯 움직임이 둔해졌고 공격 전개도 빠르지 못했다. 반면 연변팀의 수비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은 가운데 전

반전이 종료되었고 두 팀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후반전에 돌입해 두 팀 모두 선수 교체 없이 경기를 재개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심수팀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면서 중원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팽팽한 균형 속에 램프가 날카로운 역공을 주고받았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56분경, 심수팀은 용병 가리타를 투입하며 '3 용병' 체제로 전환했다. 연변팀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려는 전술적 교체였다. 가리타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개인 기량을 갖춘 위협적인 존재였다. 심수팀은 가리타를 앞세워 연변팀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연변팀 수비진과 골키퍼 구기호의 집중력을 뚫지 못했다. 66분경, 연변팀이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19세 리운호와 21세 리석민을 투입하며 손석봉과 최태욱을 내리보낸 심수팀의 공세에 맞섰다. 74분경에는 양이해를 올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주장 박세호를 내렸다.

그러던 82분경, 심수팀 로드리고가 연변팀 문전으로 돌파하던 중 수비수에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퍼로 나선 심수팀 용병 가리타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0대1. 남은 시간 연변팀은 18세 공격수 곡언형을 투입하며 동점을 위한 공격을 펼쳤지만 결국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연변팀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다. 오는 4월 12일 15시, 연변팀은 대련곤성팀과 제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글 오건기자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감독초대석]
“마무리 아쉬웠다”... 이기형 감독 대련전 승리로 반등 다짐



경기후 이기형 감독은 “경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면서도 “선수들이 수비 조직과 전방에서의 압박, 몸싸움에서 잘해줬고 공격에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경기를 총평했다. 이어 그는 “멀리 원정까지 따라와 뜨겁게 응원해준 팬 여러분께 승점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가혜기자

[제4라운드 미리 보기]

‘한 경기’ 졌을 뿐... 연변팀 대련 원정길서 반등 노린다



▲ 제3라운드에 조반니는 복귀했으나 포부스가 결장했다.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연변팀이 시즌 첫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갑급리그 제3라운드 심수청년인팀과의 격돌에서 0대1로 경기를 내주며 아쉬운 패배를 떠안았다. 기록은 압도적이었다. 연변팀은 슈팅(12회)과 유효 슈팅(7회) 모두 심수팀(슈팅 7회, 유효 슈팅 2회)을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골도 넣지 못하며 '슈팅 대비 득점 전환률'이 낮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 연변팀은 시즌 개막후 1승 1무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승점 4점(1승 1무 1패)으로 리그 7위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내용이 많이 아쉽다.”며 경기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실히 이날 연변팀은 슈팅 우세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족 등으로 답답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단 3경기를 치렀을 뿐이다. 한 경기의 패배로 팀의 진가를 평가할 수는 없다. 되돌아보면 지난 2025 시즌 연변팀은 개막후 원정 4라운드에서 1무 3패로 승점 1점밖에 수확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올해도 개막을 앞두고 원정 4라운드 이 예정되면서 팬들은 은연중에 '원정에서 승점만 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두경을 열어보니 연변팀은 개막전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제2라운드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그로 말미암아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고 필자를 포함해 무패행진중인 연변팀이 개막 이후 2연패중인 심수팀을 상대로 또 한번 상승세를 노릴 수 있으리라 예견했던 게 사실이다. 문제점을 분석해 적시에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의 경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보인다. 이

미 지난 일이고 경기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4월 12일에 연변팀은 대련곤성팀과 제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연변팀으로서의 개막후 4경기 연속 원정의 마지막 일적이다. 맞대결 기록을 살펴보면 두 팀은 지난 2025 시즌 두차례 맞붙어 연변팀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홈에서 3대2로 승리했고 대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 같은 상대 전적은 연변팀이 심리적으로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준다. 더불어 이번 맞대결의 관건은 '결정력 싸움'이 될 전망이다. 대련곤성팀은 올 시즌 영입한 노만이라는 해결사를, 연변팀은 조반니라는 창의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함께 주변 선수들의 지원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승점을 놓친 아쉬움이 있는 만큼 먼저 득점을 뒤 그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연변팀으로서의 제3라운드에서도 드러났던 포부스의 부상 공백이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대련곤성팀 또한 무세퀴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다. 연변팀은 있어 이번 대련 원정은 4월 18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원정길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경기이다. 선수들이 필승 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이 자명하다. 대련곤성팀이 홈 리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연변팀이 맞대결 우위를 상대적으로 나은 전력 가동률을 바탕으로 제3라운드의 아쉬움을 씻어낸다면 시즌 2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대결이다. /김가혜기자



[포토 포커스]
조반니의 복귀

지난 제2라운드에서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결정하며 술한 '이야기거리'를 낳았던 조반니가 이번 제3라운드는 선발로 출전했다. 조반니의 복귀는 팀의 전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비록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부스의 부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반니의 복귀로 연변팀 공격진의 더욱 다양한 옵션을 기대해본다. /글 김가혜기자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안도현 축구리그 막 올렸다... 3개월간 진행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리그가 4월 4일 안도현인민체육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김일성 유일의 한급 축구리그인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축구+'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현역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특별히 연변의 축구 명장 고종훈을 초청하여 그를 '안도현 청소년 축구 발전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또한 연변드림축구구락부(延边梦想足球俱乐部)에는 '안도현 교정축구 전라 파트너' 패를, 대회 후원사인 신화룡그룹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야말로 안도현 축구 발전을 위한 사회각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파기자

담룡 결승플! 장춘아태, 홈에서 소주 꺾고 시즌 첫 승

4월 5일, 2026 시즌 갑급리그 제3라운드 경기장 장춘경제기술개발구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장춘아태는 홈 개막전에서 소주동오를 상대로 담룡의 결승플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장춘아태는 징계로 인해 올 시즌을 마이너스 승점에서 출발했고 개막후

두 경기 연속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는 무려 8년 만에 경제기술개발구경기장으로 복귀한 홈경기였기에 팬들의 기대가 컸다. 전반전에 장춘아태는 경기를 주도했으나 풀대를 맞고 땡겨나간 공,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득점 등 아쉬움을 남기

며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에 돌입해 장춘은 공격 효율을 높였는데 베테랑 담룡이 결정적인 순간 팀을 구해냈다. 후반 74분, 담룡은 동료의 크로스를 받아 슈팅으로 연결하며 개인 시즌 첫 골을 터뜨렸고 팀은 1대0으로 앞서갔다. 이후 장춘아태는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의 반격

을 막아내며 한골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다. 이번 승리로 장춘아태는 개막후 부진에서 탈출해 승점을 쌓는 데 성공했다. 오는 4월 11일 제4라운드 경기에서 장춘아태는 역시 홈에서 섬서련합과 맞붙을 예정이다. /김령일보